



### 광산경찰-기동순찰대, 청소년 비행 예방

광주 광산경찰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17일 전남공업고등학교 정·후문 일대에서 하계 방학 중 청소년 비행, 중독범죄 예방을 위한 하곳길 캠페인과 순찰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날 하곳길 합동 순찰에는 학교전담경찰관, 기동순찰대 2개 팀, 교사·학생 등 총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학교 주변 폭력·흡연 등 비행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남공고 정·후문 원룸촌 일대를 촘촘히 도보 순찰했다.

또 하계방학을 맞아 청소년 비행 예방과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도박·마약 등 중독성 범죄를 사전 차단하고, 불법도박 온라인 사이트 강력 단속과 행위자 검거 등 경찰의 대응강화 의지를 학생과 주민들에게 홍보했다.

광산경찰은 교육공동체와 합동 청소년 비행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청소년 밀집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와 유해환경 단속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상철 기자



### 광주상의, 청년 일자리 분과위원회 회의

광주상공회의소는 18일 3층 회의실에서 지역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

상의는 지난해 출범한 상생형 일자리 거버넌스를 여성, 청년, 중장년 등 각 대상별로 확대 구성해 고용과 관련한 다양한 요구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고자 청년 일자리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고용노동부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 혁신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 북구청, 전남대학교, 광주시교육청, 광주청년센터,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등 청년 일자리 지원기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최권범 기자



### 전남경총 주관 '제1회 전남 경영자 포럼'

전남도는 18일 전남경영자총협회 주관으로 무안 남악 스키아레나에서 '함께하는 지역경제, 함께 여는 글로벌 전남 미래'를 조성하기 위해 '제1회 전남 경영자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날 포럼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전남경영자총협회 신명균 회장과 김철희 명예회장, 이성룡 광주지방노동청장, 22개 시군 기업 대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경영자총협회는 1981년 설립된 공익 경제단체로 현재 204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경영인의 노동관계를 조정·지원하며 노사 간 이해 증진 및 협조 체제 확립을 통해 지역 산업 평화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최근 전남은 역동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루면서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꽃 피우고 있다. 앞으로도 기업이 세계로 힘차게 뻗어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 광산구, 골목상권 미식 브랜딩 아카데미 개강

광주 광산구는 지난 17일 광산구 지역경제활력센터에서 광산 대표식당 육성을 위한 '2024 골목상권 미식 브랜딩 아카데미'를 개강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

올해 아카데미에는 공개모집으로 선발한 광산구 소상공인 20명이 교육생으로 참여한다.

오는 9월11일까지 총 9주간 7명의 전문가가 외식 경영자의 마음가짐, 내 가게 브랜딩, 온라인 마케팅 전략 등을 주제로 외식업 특화 교육을 진행한다.

기존 영업자뿐만 아니라 업종 전환 재창업자, 예비 창업자의 역량 강화, 안정적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올해 아카데미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의 체계적인 강의로 구성했다"며 "지역 소상공인이 시대 흐름에 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 전남대병원, 발전전략 수립 미래발전위 신설

전남대학교병원이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급변하는 보건 의료 환경 및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사결정 구조인 미래발전위원회를 신설했다.(사진)

18일 전남대병원 미래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의생명 연구지원센터 1층 중역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정진 병원장을 비롯해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장, 황운찬 전남대치과병원장, 선종근 빛고을전남대병원장 등 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미래발전위원회는 △미래발전위원회 운영 방향 △새병원건립사업 추진 현황 △병원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했다.

미래발전위원회는 교육·연구·진료·인프라·조직 등 영역에서 전남대병원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핵심과제를 찾고 중장기 어젠다를 발굴하게 된다. 노병하 기자



### 정상기업 SG골프필드 풍암점, 기부 약정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정상기업 SG골프필드 풍암점이 광주 사랑의열매 착한가게에 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

정상기업 SG골프필드 풍암점은 지난 7일 개업한 기업으로 이번 광주 착한가게 가입을 통해 정기 기부를 약정했다.

이정오 정상기업(주) 대표는 "우리 지역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상기업 SG골프필드 풍암점을 운영하는 정상기업(주)은 착한가게 외에도 광주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고 이정오 대표가 광주 168호 아너 소사이어티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광주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박찬 기자

### 송창영 광주대 교수,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전문위원

송창영(사진)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국가유산 제2대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는 국가유산 등의 품질 향상을 위한 국가유산청 자문기구다. 2027년까지 3년 임기로 새롭게 구성한 2대 위원회는 위원 29명, 전문위원 45명, 3개 분과(보수, 복원정비, 근현대)로 구성됐다.

복원분과 수리기술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송 교수는 그동안 국가유산 분야에서 국가핵심기반 보호대책 마련과 문화재 분야 관련 연구를 통해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

송 교수는 국가유산청의 전신인 문화재청에서 제1대 문화유산수리기술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3년 동안 활동하며 '궁능방재시스템 개선 연구', '건축문화재 지진 등 재난사례 기초조사'를 통한 대응체계 개선 등의 연구를 통



해 문화재 보존과 재난 대응체계 개선에 기여한 바 있다.

송 교수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을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가유산의 수리와 보존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와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송 교수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 공공기관에서 주요 안전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품격있는 안전사회'를 비롯해 재난과 인공지능, 건축방재론, 재난과 윤리, 재난안전인문학, 방재 관리 총론 등 65편의 저서를 집필하며 관련 저술 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강주비 기자



### 기아오토랜드 전남공고 총동문회, 적십자에 기부금

기아오토랜드 전남공고 총동문회가 지난 15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 기부금 6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기아오토랜드 전남공고 총동문회 회원 160여명은 기부금 마련을 위해 일일차집을 운영했고, 이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 6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

달했다.

이 중 300만원은 모교인 전남공업고등학교에 장학금으로 전달되고, 나머지 300만원은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성덕 회장은 "모교 후배들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찬 기자



전남개발공사, 광역 유일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 전남개발공사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4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보행자 중심도시 오룡지구'라는 작품으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전남개발공사 제공



광주 서구의·약 분야 신규 착한가게 54개소 탄생 광주 사랑의 열매는 지난 16일 착한가게에 가입한 센트럴윤길중앙과를 방문해 현판을 전달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